

국소 진행된 후두암에서 상윤상 후두부분적출술의 결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교실

김현수 · 황성재 · 방충일 · 조광재 · 선동일 · 박영학 · 김민식 · 조승호

목적 : 국소 진행된 후두암에서 상윤상후두부분적출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임상적 병기와 병리조직학적 병기를 비교하여, 수술 후의 결과를 분석하여 본 술식의 시행에 대한 종양학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부성문강관을 침윤한 후두암에서 부성문강을 이상와의 점막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제거할 수 있지 조직학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9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후두의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고 임상적 병기가 국소 진행된 (T2b 이상) 환자중 상윤상후두부분적출술을 시행받은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술전 임상적 병기, 술후 병리조직학적 병기, 재발 여부를 알아보았다.

결과 : 환자수는 총 30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61세,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27.3개월 이었다. 원발부위는 성문암이 42례, 성문상부암이 9례, 성문하부암이 3례이었다. 술

전 임상병기는 T2b가 9례, T13가 20례, T8가 4례였다. 국소 재발은 4례에서 발생하였고 국소재발 4례는 모두 T 병기가 술 전 낮게 평가되었다. 갑상연골 침범, 성문하 침범, 전후두개강 침범이 국소 재발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으며 이들은 술전 T병기의 하향 평가의 원인과 일치하였다. 부성문강을 침범한 경우 상윤상 후두부분적출후 조직학적으로 시상와 점막까지 평균 거리는 9.1mm로 모두 안전하게 절제연을 확보하였다.

결론 : 술 전 T병기의 하향평가는 국소 재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종양이 주성문강내에 침범했을 경우 상윤상 후두부분적출술로 안전하게 종양의 절제가 가능하였으며 이상와의 점막을 보존하면서 부성문강을 이상와로부터 분리할수 있었다.